

Franch

사운드 ●●●●
무용 ●●●●

●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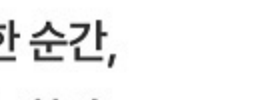
100

15

모험을 보장한다."



움직이는 회화 작품이다.



체'는 으저

*골렘(Golems) : 유대 민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형상을 한 전설의 존재



Franck Vigroux

프랑크 비그루는 실험적인 전자 음악부



박자, 전자적인 텍.

구조적인 긴장
탄생에 의해

기술 ●●●
영상 ●●●

콘셉트 음악 프랑크 비그루
공연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Oryx EDITIONS
 HOGREFE
 HOGREFE
 HOGREFE
 HOGREFE
 HOGREFE
 HOGREFE
 HOGREFE
 HOGREFE
 HOGREFE
 HOGREFE
 HOGREFE

Figure 1



THEY JUST EXIST

conclusion

the festival

s festival



예민한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동적 몸으로써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움을 획득하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다.

이것에 대해 관계 맺고, 맥락을 만들어가며, 여러 가지 소문을 불러일

무형은 그 자체로 몸과 동물, 사물, 온 우주의 모든 힘을 떨리고
 감각하며 본질의 안과 밖을 뒤 흔들고 변신시킨다.
 용과 몸은 필연적 합의로 끊임없이 새로운 몸이 나타나기를 요구하
 그 속에서 부유하기 위해 움직이기 위해 새로운 몸이 들어오길 소망한다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이 주어질 조망한다. 서 우린 '끊임없이 흐르고 바뀌는 상태' 바로 셰이프시프터가 되기로

최민선, 강진안 안무

로 직
있으며

시키는 과정에 집중하는 최민선과 강진안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여집합 집집집 합집여>(2016)

bance)> 201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공연정보

30pm

공연장소

만 13세 이상(중학생 이상)	소요시간	45분
2023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립정동극장_세실)	국 가	대한민국

원

초연	2023 서울국제 (국립정동극장)
후원	

[illegible]

Dr. **YOUNG**  **DR. YOUNG**  **DR. YOUNG**  **DR. YOUNG**  **DR. YOUNG**  **DR. YOUNG**

SPAIN

10

2023

서울국제

구조와 의식

STRUCTURE AND CONSCIOUSNESS

강요찬

YOCHANKANG

장르

콘셉트 퍼포먼스 ●●●●●●
무용 ●●●●●●
연극 ●●●●●●
다원 ●●●●●●
체형 ●●●●●●

10.19. 목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본 공연은 무대 위 객석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일반 객석을 활용하는 공연입니다.
예매 시 좌석배치도를 참고하시어 구역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구조와 의식> 작업 역시 필자에게는 개념무용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켜준 작업으로 기억에 남는다. 그는 국립현대무용단
<we are>에서 일상의 다양한 인간들의 촘촘한 놀이정신 및
움직임과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그의 다양한 관심과 주제의식에 신선하다는 표현과 격려를 전한다.

- 2022 컬처캠프 공연기획자 장승헌 -



© 김태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구조 안에서 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탈 구조를 희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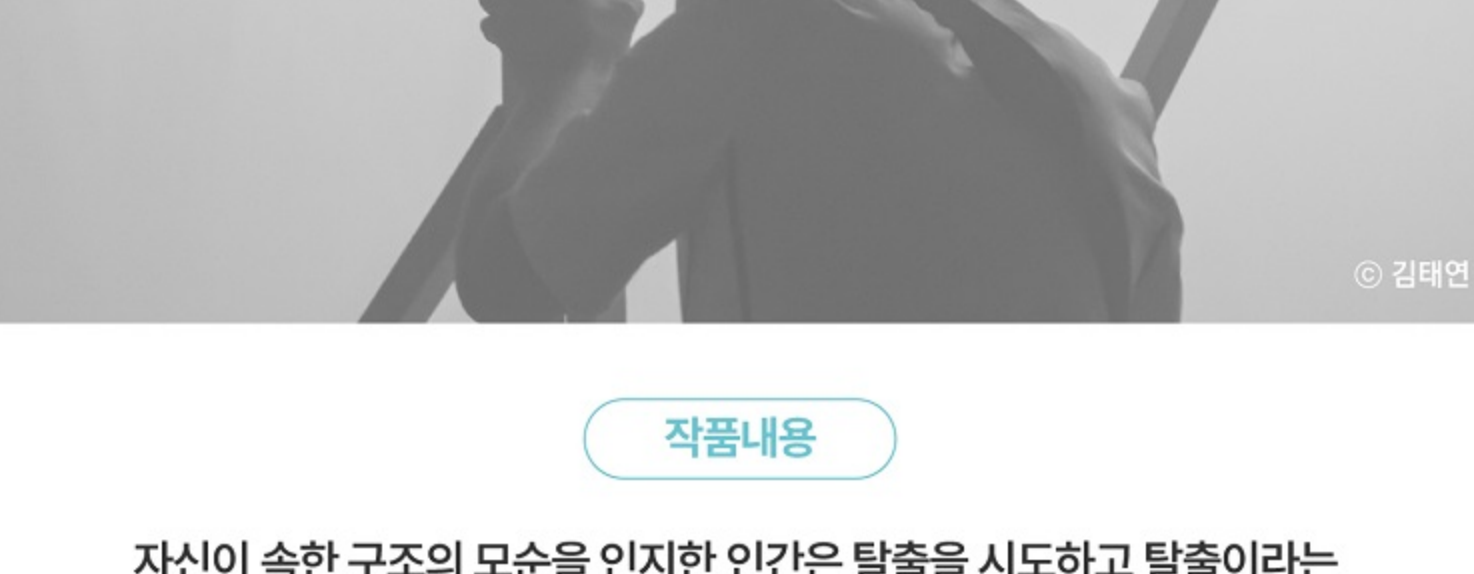
탄생의 순간부터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모두
구조 안의 존재로 살아왔다. 정해진 목적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우리는
구조의 억압으로 인해 무너지기도 구조의 관용으로 다시금 살아나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러니 사이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감지되었을 때

구조에 대한 무의식은 의식으로 전환된다.

그렇다 자유를 향한 몸짓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구조와 의식>은 구조와 인간의 관계를 조명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마저
희미해진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 김태연

작품내용

자신이 속한 구조의 모순을 인지한 인간은 탈출을 시도하고 탈출이라는
동기는 구조의 해체를 이끌어낸다.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의식이 발현된

최초의 순간부터 자신이 그려왔던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려한다.

그러나 구조 안의 존재가 온전히 자유로워지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렇게 이상을 향한 도전은 모호성을 품은 또 하나의 구조라는 의도에 어긋난

결과물을 남기고 새로운 세계로부터 외면당한 인간은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뿐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의식과 탈출, 새로운 시도로부터 남겨진 결과물은

본래의 의도와 무관하기에 무의미한 것일까? 온전한 자유를 얻어내지

못했을 때 그 과정 속의 치열했던 움직임은 가치를 상실하는 것일까?

자유를 향한 시도와 그 실패의 끝자락에 남아있는 건 언제나 삶의 허무일 뿐일까?

작품은 구조를 다양하게 형상화될 수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

같은 맥락에서 작품은 여러 형태의 오브제로 구조를 시각화하고 그 안에 놓인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과정을 포착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저마다의 구조를 부수며 성장하고 있다.

한 개인의 의식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 함께
작품을 만든 이들의 이야기가 되었다. 개인의 경험이 곧 모두의 경험이 되듯

이 작품이 비로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이창준, <구조와 의식> 드라마투르기



© 김태연

강요찬

움직임과 사고, 사운드와 장르적 표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어떠한 기준에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추구한다. 또한 ‘넓은 가치의 목적을 가진 작업’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고찰한다.

머무르고 안주하는 안정감 있는 시간보다는 특별하고 신선한 기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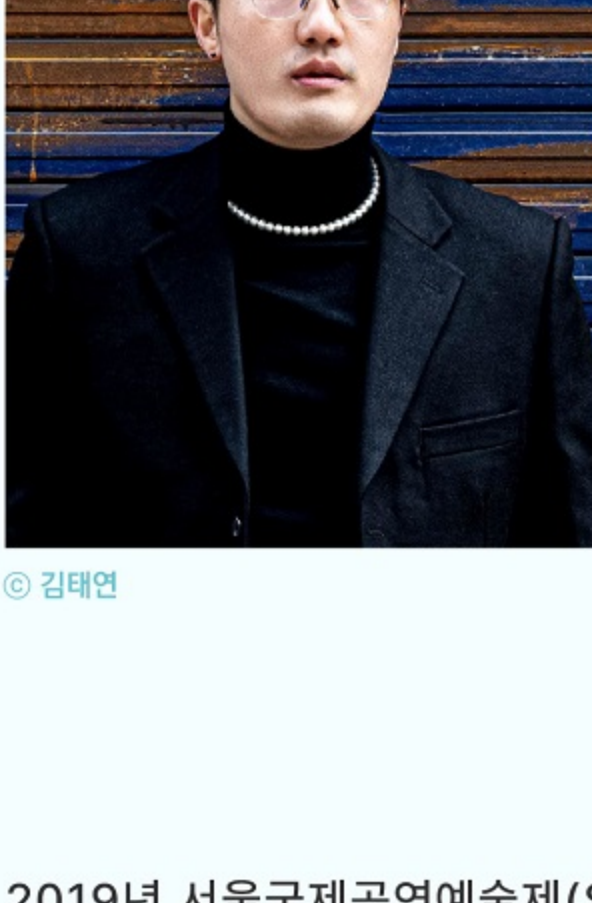
노출된 불안정한 시간과 경험을 거러까지 않으며 즐거이 여긴다.

낯설고 특이한 순간들을 포착하고 기록하여, 몸을 통해 낯선 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치환하는 것에 예술적 소명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SEAD예술학교 안무자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월간아트페스티벌

아트디렉터와 한양대, 호서실용예술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 김태연

강요찬

YOCHANKANG

안무

아티스트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의 대답은 늘 유연
하거나 유연하지 않은 사람이다.

2014년 유럽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약
7년간 베를린과 밀라노, 폴란드와 국내까지
문화와 국가의 한계를 넘어 예술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독일 ‘비토크 쿤스트하우스

레지던시’ 상주 예술가로 선정, 이탈리아 ‘Bo-
logna Leggere Struture’ 트레이너 수료 후,
오스트리아 SEAD 예술학교 안무자 과정을
졸업했다.

2019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국내초청작<The answer>로 한국에
돌아와 2020년 서울무용제 최우수상<집속의 집>연출, 2021년 <The table>
<직선과 곡선><The ball><Foot note>, 2022년 서울문화재단 지원 <구조와
의식>, 국립현대무용단 스텝업 지원 <we are> 안무 및 연출을 하며 자신만의
장르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3년 하반기 이스라엘 Jaffa to Agripas Festival
해외초청작으로 <The table3> 공연 예정이다.

공연정보

공연일정 10.19.THU 8pm

장 르 콘셉트 퍼포먼스 ●●●●●●
무용 ●●●●●●
연극 ●●●●●●
다원 ●●●●●●
체형 ●●●●●●

안 무 강요찬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13세 이상(중학생 이상)

소요시간 60분

초 연 2022년도. 아트스탠드 서울/대한민국

국 가 대한민국

조동

JODONG



© BAKI

10.22. 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김성훈 댄스프로젝트

Kim Sung Hoon Dance Project

장르 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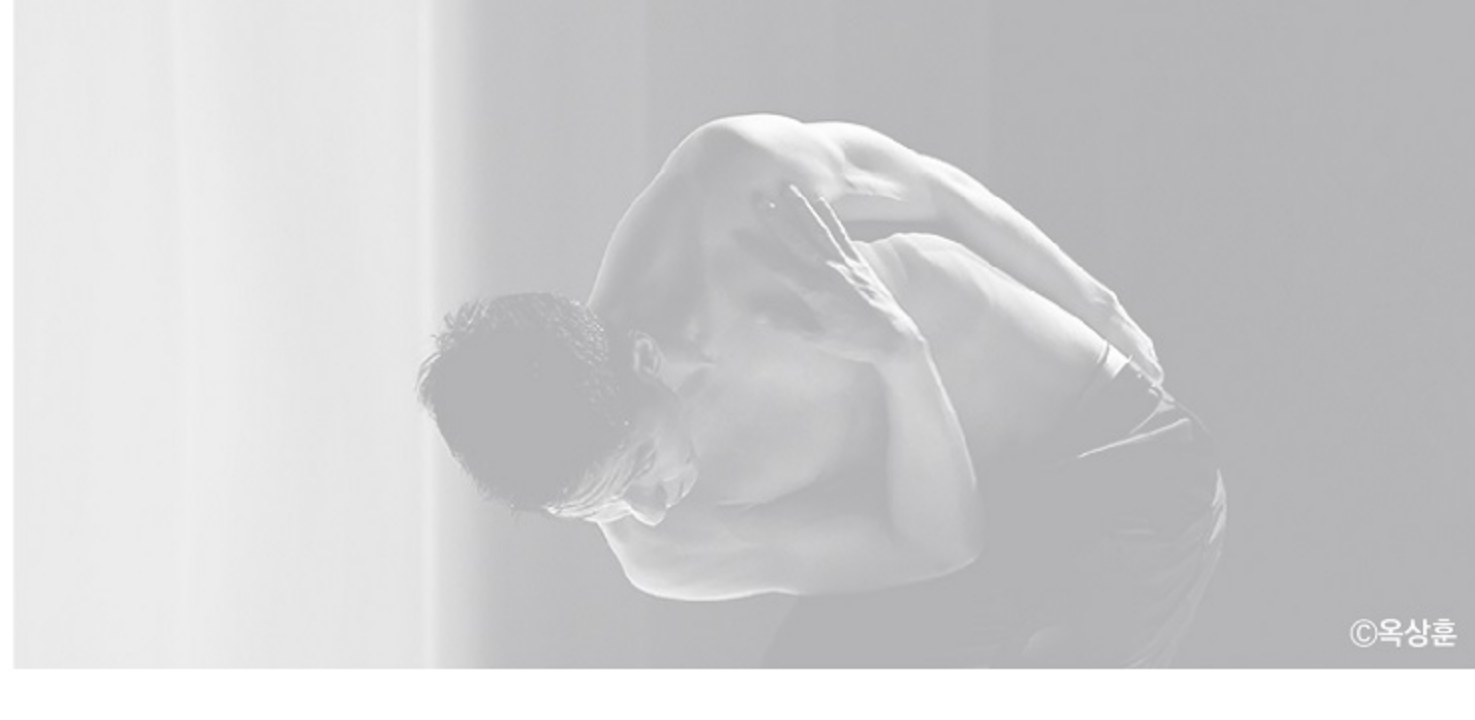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스며든 메시지, 선명한 시각적 임팩트

- 2022. 3. 춤웹진 춤비평가 장광렬 -

반복되는 삶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허무함, 김성훈 댄스프로젝트 <조동>

- 2022. 2. 오마이뉴스 이규승 -



© 옥상훈

“변화가 두려워 쳇바퀴 속
급박하게 달려가는 우리들 이야기”

조동은 조급하고 급박하게 움직인다는 뜻으로,
반복되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공허함’과 ‘허무함’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그려낸 작품이다.



© 옥상훈

작품내용

공장의 톱니처럼 크기, 모양, 속도로 하루하루 흘러간다.
조급하고 망령되게 움직이는 현 사회의 우리들은 점점 다른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걸까?



© 옥상훈

김성훈 댄스프로젝트

2017년에 창단된 김성훈 댄스프로젝트(Kim Sung Hoon Dance Project)는
블랙코미디를 이용한 휴머니즘적인 작품들을 지향하며, 인간 본연의 움직임을
무대화하는 작업요소를 중요히 여기는 창작 철학을 바탕으로 다소 모호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주제들을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창작 작업을 하고 있다.



© BAKI

김성훈

Sung-hoon Kim

안무

인간 본연의 움직임을 무대화하고,
블랙코미디를 이용한 휴머니즘적
본질을 추구하는 작품으로
관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안무가

안무가 김성훈은 국내 및 중국, 미국, 유럽의
해외 아티스트와의 협업 활동과 영화, 드라마,
뮤지컬, 대중음악 등 다양한 공연예술분야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의 창작 영역을 넓히고
안무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작품 <조동>(2022)으로 2022 춤비평가상 베스트6을 수상하였으며, 그의 대표작
으로는 <Mindseeker>(2021), <Pool>(2019), <No Film>(2018) 등이 있다.

공연정보

공연일정	10.22.SUN 3pm, 7pm	장르	무용 ●●●●●
안무	김성훈	공연장소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소요시간	55분
초연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022.2월)	국가	대한민국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WELCOME TO YOUR KOREA

WELCOME TO YOUR KOREA

WELCOME TO YOUR KOREA

10.20. 금-10.22. 일

안은미컴퍼니

Ahn Eun-Me Company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장르 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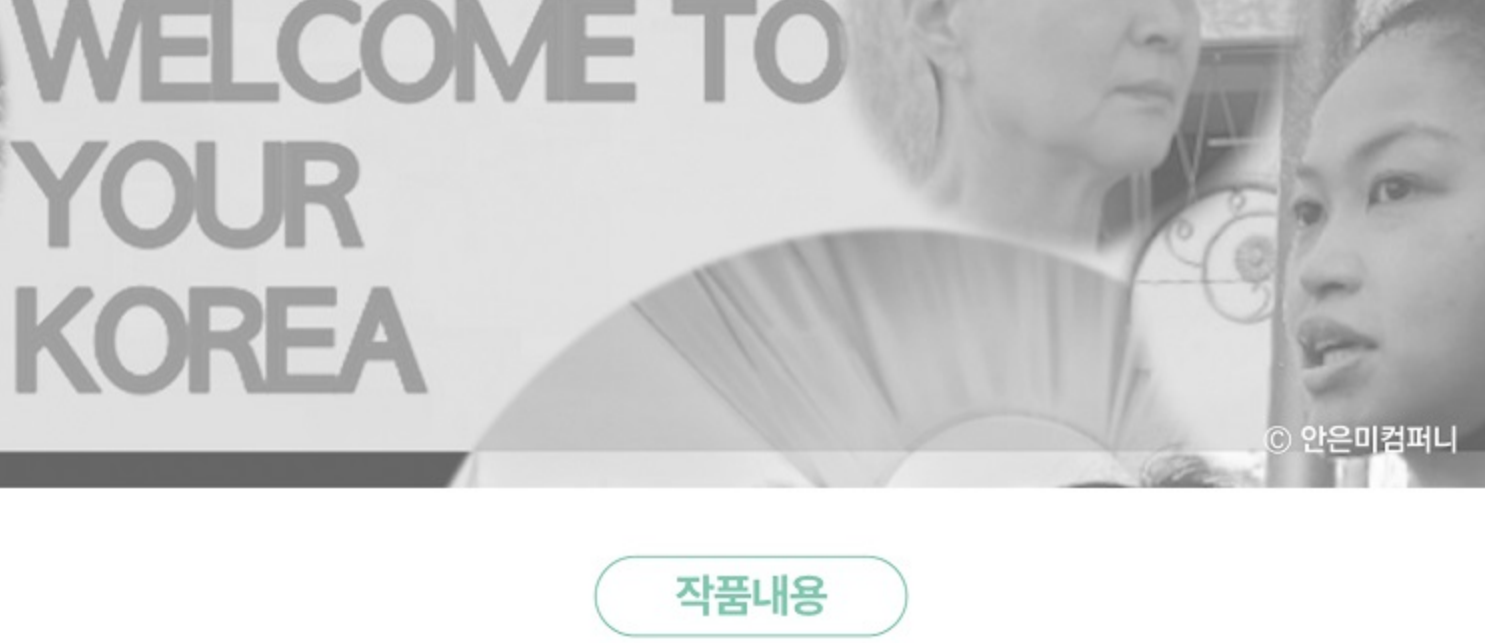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 안은미컴퍼니

*‘당신이 고향으로 여기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당신만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웰컴투유어코리아 Welcome to Your Korea>는,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이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젝트다. 안은미컴퍼니는, 한국 사회의 내일로 가는 더 나은 길을 모색한다. 평범한 사람들과 협업하며 문제적 상황을 창출하고자 하는, 특별한 눈과 귀와 창조력을 가진 아세안 국가의 안무자 4명을 초청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국 출신 이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협업자를 선발한 뒤, 제각각의 소통 방식을 통해 하나의 작품(혹은 예술적 상황)을 연출·발표한다.



© 안은미컴퍼니

작품내용

안은미가 2019년부터 꾸준히 탐구해온 작업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아시아다. 아시아의 밀레니얼 세대를 주인공으로 한 작업, 두 차례에 걸친 인도네시아 무용수들과의 작업으로, 이미 국제적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부터는, 우리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대륙에 주목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의 예술가(안무자)를 만나 대화를 이어왔다. 조사연구여행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태어난 문제적 신작이, <웰컴투유어코리아 Welcome to Your Korea>다.

어느새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일부가 된 아시아의 형제자매들.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의 노동자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피땀을 흘리며 생존을 모색해왔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한국의 오늘까지 책임지게 됐다. 그들이 없어진다면, 식탁에 오르는 신선한 야채도 사라지고, 중소기업의 공장들은 모두 멈춰버리고 말 테다. 특별한 파워를 가진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주민이 시민으로 인정받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한다.

한국은, 아니 한국인도, 할 수 있을까?

안은미컴퍼니

몸과 움직임의 예술가 안은미가 이끌어온 안은미컴퍼니는, 1988년부터 오늘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공연단체로 명성을 떨쳐왔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현대무용의 경계를 뛰어넘어 공연예술의 역사를 새롭게 작성해왔다. 수많은 무용수들이 안은미컴퍼니와 함께 열정을 불태워왔기에, 공연창작단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무용인 발전소의 역할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었다. 민간단체로서는 드물게 단명하지 않고 오랜 시간 끊임 없이 작품 활동을 전개해왔고, 그동안 구축한 전지구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인들 사이의 창발적 상호 교류에 힘쓰고 있다. 즉, 공연용 예술뿐만 아니라, 어떤 면으로든 억압받은 이들을 이리저리 연결해, 보다 자유롭게 수평적인 발화(혹은 발언과 표출)가 가능해지는 창조적 연결망의 시공을 창출하는 일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최영모(Choe Youngmo)

안은미

Ahn Eunme

안무·예술감독

안은미는 30여 년간 안은미컴퍼니를 운영하며 특유의 창작과 기획력을 접목, 실험적인 무대를 만들어왔고, 유럽과 아시아 등 국제 무대에서의 신작 발표를 통해 한국현대무용의 힘과 가능성을 입증해왔으며, 전문 무용수 양성 및 무용 교육 에도 헌신하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안무가요, 현대무용가다.

‘아시아의 피나 바우쉬’로 주목받고 있는 안은미는 “인간은 춤추는 동물이다”라는 기조로 안무작업을 전개해왔다.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춤의 자연사’가 안은미의 안무를 관통하는 대주제였는데, 1988년 창단한 안은미컴퍼니가 한국, 미국, 유럽 등 세계무대를 누비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갈채를 받아온 이유도, 보통사람의 보편적인 경험과 정서를 창조적으로 (재)직조해낸 데 있다. 몸으로 표현하는 환상적인 색채과 언어, 에너지와 유머를 휘두르며, 고루하고 갑갑한 관습의 틀을 깨는 일격과 파격의 춤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세계 무용계의 남다른 주목과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대표작

<드래곤즈>(2021), <거시기모놀로그>(2019), <안은미의 북.한.춤.>(2018), <아저씨들을 위한 무책임한 댄스>(2013), <사심없는 댄스>(2012),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2011), <심포카 바리-이승편>(2007)

수상이력

2022.01.27 <2021 무용분야 예술대상 : 현대무용 부문>
2019.10.18. <제68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 무용 부문>
2019.10.17. <2019 올해의 양성평등 문화인상>, 여성신문
2019.10.08. <제38회 세종문화상: 예술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2019.03.27. <2019 국제극예술협회 특별상>, 국제극예술협회
2016.04.29. <한-불 문화상>,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 파리 외교관클럽

공연정보

공연일정	10.20.FRI 7:30pm 10.21.SAT 4pm 10.22.SUN 4pm	장 르 무용 ●●●●●
안 무	안은미	공연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연령	만 7세 이상(초등학생 이상)	소요시간 70분
초 연	2023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국 가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SPAF 2023 서울국제공연예술제

SPAF 2023 서울국제공연예술제